

서양복식에 나타난 양적과장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I)

- 고대부터 근대복식을 중심으로 -

성 광 숙* · 이 순 흥**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 전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Voluminous Enlargement in the Western Costume

- From Ancient to the Modern Times -

Kwang-Sook Sung* · Soon-Hong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My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4. 5. 31 투고)

ABSTRACT

Opposed to following the contours of the human body, the voluminous enlargement in costume, which characterizes the distinguished enlargement in space rather than the contour of human body, mean the enlargement aspect involving the vertical protrusion and the expansion of shape and volume as well as the extension of length.

The costume enlargement as a different method of expression is a symbol showing a meaning of something and an aesthetic expression containing man's will.

This voluminous enlargement of costume, as an aesthetic expression, has different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immanent meanings according to ideals and thoughts as well as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each age. Accordingly, the aesthetic consciousness also differs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times.

To study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costume's voluminous enlargement, focus had been given to milieus that show comparatively conspicuous voluminous enlargement. Periods that have been subjected to this study include costumes of the ancient Egypt, the Gothic period in the Middle age, the Renaissance, the Baroque Rococo of the recent times, and the modern era (Empire, Romantic, Art Nouveau, etc).

With focus given to the principle of design obtained through this study were used to analyz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Furthermore, based on the spirit of the times and the socio-cultural symbolism,

research on immanent meanings, as supported by objectivity and universal validity, was also made, the enlargement beauty of costume had been placed under the aesthetic category and, by interpreting the analogies of presented in aesthetic consciousness, the true nature of the voluminous enlargement in costume had been traced.

To Conclude,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voluminous enlargement of the costumes in history was found to have following characteristics:

- (1)Metaphorical (2)Unlooked-for irregularity (3) feeling of satisfaction driven by self-enlargement
- (4)Dignified sublimity (5) Symbol of wealth and class (6)Ceremonial dignity (7)Tradition of the nobility
- (8)Aesthetic ornament (9)Ideal contour of the body

Key words : voluminous enlargement(양적과장), aesthtic consciousness(미의식)

I.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의복은 인간의 조형 의지를 표출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로 내면의 형상화와 자아의식의 표출 수단이 되어왔다. 형태의 확장은 인간의 표현적 욕구에 따라 인체 고유의 형과는 관계없이 나타나는 형태감의 특별한 강조 현상인데, 욕망하는 것의 이지적 움직임에 의해 나타나는 표현 양식으로 이는 외형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포하는 내재적 정신과 감정의 발현체로 인식되는 것이다. 복식의 양적과장 현상은 '양'에 대한 욕망의 표현이다. 즉 인체가 차지하는 개별적 공간내에서 양을 더욱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으로, 확장되고 부풀려진 의복을 통해 인간의 신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인간 자신의 공간적 양감을 이룩하려는 것이라 하겠다.¹⁾

결과적으로 양적과장된 복식의 미학적 이해와 그 예술성에 대한 고찰은 생활과 창조라는 형식과 방법으로 뿐만 아니라 제2의 피부 혹은 제2의 신체로서의 형식을 통하여 미적 욕망을 추구하고 자아를 완성하며 창조하려는 목적 달성에 그 타당성을 찾게 된다.²⁾

복식의 양적과장이라는 미적 형식에는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의 미적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는 복식의 양적과장이라는 통합된 표시를 구축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와 그 표시 속에서 발견된다. 그

러므로 이는 개성이 아닌 사회 문화적인 집단적 공통성을 지닌 복식 표현이므로 복식에 대한 양적과장의 이해는 복식과 인간의 관계의 구조 뿐 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생활 행위를 탐구하는 매우 의의있는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식의 양적과장의 사적 고찰을 통해 조형성을 분석하고 그 내적 의미를 파악하여 객관적 미를 가늠하여 본다. 이를 토대로 양적과장 현상을 시대 정신과 이념, 예술 양식, 그리고 주관적 복식 양태 등의 의미로 파악하여 이를 범주화시켜 유형별로 분석해 미의식을 도출하여 복식의 양적과장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의상에 있어서의 제 2의 혁명은 제1차 세계 대전 도중에서 부터 직후에 걸쳐 일어났다. 그 때가 바로 유럽과 미국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소위 말하는 현대사회로 들어가는 시기였다.³⁾ 이로서 본 연구는 서양복식의 시대를 현대사회 이전 시기와 현대사회의 두 시기로 크게 나누어, 현대사회 이전 시기는 고대 이집트부터 근대의 1910년대 벨 에포크 시대까지, 그리고 현대사회는 그 이후인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이에 두 시기에 나타나는 복식의 양적과장을 각각 1보와 2보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제1보의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연구 대상은 문헌상의 궁정복식을 중심으로 한다. 연구의 시기는 양적확

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고대의 이집트, 중세의 고딕, 근세의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근대의 엠파이어, 로맨틱, 크리놀린(clinoline), 아르누보 복식 등을 중심으로 복식의 양적과장에 대해 문헌을 고찰하였다. 복식의 내용적인 범위는 의상과 그에 따른 헤어스타일, 모자, 신발 등의 악세서리로 제한한다.

연구 방법은 먼저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서양복식의 양적과장 현상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파악하여 복식의 양적과장 현상을 고찰한다. 각 시대별로 고찰된 복식의 양적과장 현상을 복식미 분석의 틀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미(조형적 특성)와 거기에 내재된 내용미(내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된 미의식을 범주화시켜 복식의 양적과장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였다. 이와같은 연구수행을 위해 질적(qualitative) 연구 방법의 서술형 방식과 해석형 방식으로 수행하며 고찰된 사실들을 설명하고, 양적과장 현상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요소들을 유추해 내기 위해 해석형(interpretive) 방식을 이용한다. 해석형 방식은 가시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 의미의 복식 양적과장 현상을 복식 조형론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이를 지탱하는 내적 의지의 정신적 미를 조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복식의 양적과장의 의미와 유형

양적과장이란 복식의 선과 실루엣이 실제의 인체보다 눈에 띄게 양적으로 지나치게 과장된 것을 말한다. 복식의 양적과장 현상은 복식심리의 극단적인 전개에 따라 정상적인 복장의 경지를 넘어서 이상상태에 까지 도달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양적과장에 대한 문헌 자료를 보면, 原田二郎은 팽장복(膨張服)이라 하여 서양복식사의 16세기 이후 양적과장된 궁정복식을 설명하였다.⁴⁾ 조규화는 “16세기 중엽 이후 등장하는 팽대복장(膨大服裝)은 남자의 경우 근세적인 상하복장이 원래 무장(武裝) 혹은 경무장(經武裝)이 일상화한 유래를 가지고 있고

며, 이것은 원래 호신의 의미를 가지고 패드를 넣었던 것이다. 이것이 일반인에게 완성된 복장으로 착용하게 되니 호신이라는 실용성의 필요에서 벗어나 오로지 의례적인, 또한 위엄을 보이는 표현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과장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다. 어깨폭의 과장, 가슴의 패드, 트렁크 호즈(trunk hose)의 과장 등 어느것이나 형식상의 특색을 강조하였고 더욱이 과장한다는 것으로 복장의 표현상의 만족을 찾고 하였다”고 기술하여, 양적으로 과장된 복식을 팽대복이라 칭하고 그 유래를 설명하였다.⁵⁾

김영자는 복식 형태미의 표현방법의 하나로 확대와 방향을 들어 설명하면서, 양적과장 현상을 수직적 확대, 수평적 확대, 원형적 확대, 부분적 확대로 나누었다. 수직적 확대란 사람의 신장과 관련된 양적과장 심리로 길이의 방향으로 양적과장을 하는것인데 이는 위엄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우러러 보이는 대상에 대한 존중의 감정이 발휘되기 때문에 숭고미라는 미적 범주에 속한다. 고딕시대의 에넵(hennin)과 뽀랭느(poulaine), 르네상스의 쇼핀느(chopines), 드레스의 트레인 등을 예로 들었다. 수평적 확대는 인체의 앞, 뒤, 좌, 우측으로 양적과장이 되는 것인데, 신장에 대한 대비적인 성격으로 면적감을 느끼게 하면서 안정감을 부여한다. 파팅게일(fartingale), 빠니에(panier), 크리놀린 등이 있다. 원형적 확대는 인체 각부분이 원형적인 특징을 가지므로 이에 연관되어 원형의 형태로 양적과장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집트의 파시움(passium), 르네상스시대 남성의 등글게 확장된 상체, 둥근 퍼프형의 소매, 19세기 말의 볼루머 등이 있다. 부분적 확대는 일정한 부위의 양적과장으로 인해 그 방향에 시선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19세기의 힘을 강조한 버슬 스타일처럼 인체의 특정부분을 양적과장 한 것이나 스커트나 포켓, 자수, 브레이드 등의 디테일과 트리밍 등을 양적과장 한 것이다.⁶⁾

류기주는 인체과장형 복식을 과장한 방향에 따라 상방향(upward type), 하방향(downward type), 전방향(forward type), 후방향(backward type), 좌우형(right-left type)으로 구분하였는데, 상방향은 인체 머리위로 넓은 공간을 향하여 인체의 높이를 강조한 경우이고 하방향은 인체의 아랫부분을 강조하

기 위하여 높은 신을 신거나 길게 늘어뜨린 스커트를 입는 경우이며, 전방형은 앞쪽을 향한 얼굴이나 가슴·배 등의 크기나 모양을 강조한 경우이고, 후방형은 엉덩이의 후방 돌출이나 긴 트레인 등으로 인체의 뒤를 강조한 경우이며, 좌우형은 양어깨를 강조하는 소매의 좌우 양적과장, 엉덩이의 좌우를 팽창 강조한 경우이다.⁷⁾

3차원의 인체는 윤곽 즉 피부의 돌기와 만입으로 한정된 속이 비어 있지 않은 부피이고, 거기에 착장되는 복식은 구조 부분들이 속이 빈 형태로, 내부의 양이 신체 외부의 윤곽에 관련되고 신체를 보완하는데, 복식의 외부 윤곽은 대개 신체의 윤곽을 따른다. 그러므로 양적과장 복식은 신체의 윤곽에 비해 공간적으로 크게 확장된 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간 확장의 의미를 복식의 2차 공간 양적과장과 3차 공간의 양적과장으로 나누어 생각 해 볼 수 있다. 복식의 양적과장은 복장 내부의 구성선이나 복식선에 의한 2차 공간의 양적과장과 인체를 둘러싸며 형성되는 복식의 부피나 양에 의한 3차 공간 양적과장을 포함하는 것이다.

양적과장 복식은 인체 자체의 부분들을 참조하여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인체의 변형을 참조하여 만들 수도 있으며, 인체를 부분적으로 다른 물체에 비유하여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예컨대 르네상스 시대의 큰 러프(ruff) 칼라는 원통형의 목에 구형의 머리를 받쳐 주기 위해 인체자체의 부분들을 참조한 형태로 등근형으로 과도하게 확장되어 졌고, 19세기 말 버슬 스타일의 스커트는 뒤로 돌출된 엉덩이를 후방으로 더욱 크게 돌출시켜 인체의 변형을 참조한 형상이다. 그리고 중세말의 고딕양식의 첨탑을 비유한 형태의 모자인 에빙과 로코코 시대의 배, 마차, 정원등을 본딴 과도하게 큰 머리장식 등은 인체를 다른 물체에 비유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드롱(M.R. Delong)은 복식과 인체와의 시각적 상호관계 즉 종속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여, 복식과 인체 중 어느것이 시각적인 초점을 제공하는가를 관찰하여 복식의 유형을 인체 우선형 복식과 복식 우선형 복식으로 나누었는데,⁸⁾ 여기서 양적과장 복식은 인체가 복식에 종속되며, 복식에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인체보다는 복식에 시각적인 초점이 있으므로 복식

우선형 복식으로 분류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복식의 양적과장 현상을 양적과장 형태에 따라 실루엣의 양적과장과 부분적 양적과장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실루엣의 양적과장이란 실루엣 자체가 크게 양적과장 된 것이고 부분적 양적과장이란 실루엣과 관계없이 복식의 일부분, 예컨대 소매, 칼라, 치마길이, 벨트의 넓이 등이 부분적으로 크게 양적으로 과장된 것을 뜻한다.

2. 복식의 양적과장의 미의식 조명

복식의 양적과장에 관한 미의식은 일반적인 복식미 탐구 방법인 형식미와 내용미, 이를 토대한 미의식(미, 혹은 미의식)들을 유추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연구한다. 다음은 복식미 탐구의 방법으로 여기에 도입하여 양적과장의 복식미를 추론한다.

1) 복식의 내용미(내적의미)와 양적과장 복식의 내용미

보편적으로 복식의 내용미는 양식 개념, 시대정신, 사회문화적 상징성, 정신 이념 같은 추상적 실체 등을 통해 복식이 표현하는 보편적 이념을 파악하고 그 안에 내재된 복식의 내용과 정신의미를 해석하여 유추해 낸다.

드롱은 대상의 내용미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의미연상을 제안하였다. 의미연상은 대상과 관찰자, 그리고 상황이 개입된 것으로, 상황이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패션의 경향, 취향, 시각 형태의 활용에 대한 경향을 포함하는 문화적 상황이나 또한 사회적 환경까지를 포함하여 대상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이는 지각된 대상에 어떻게 의미가 부여되는지를 이해하고 종합하여 해석하는 개념으로 대상이 주는 의미를 연상하고, 연관된 의미들을 추론해 내고, 간접적인 암시와 상징을 도출해 낸다.⁹⁾ 그리고 담호스트(M. L. Damhorst)가 “복식 기호 모델”을 통해 제시한 복식의 메세지 전달의 제요소 중에서 사회적 상황, 관련집단, 문화(역사, 패션, 미학, 규범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상위 개념)등의 요소¹⁰⁾도 복식의 양적과장의 내용미 분석에 유용한 조명의 기준으로 삼는다.

2) 복식의 조형미(형식미)와 양적과장 복식의 조형미

복식의 형식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로 형태, 색채, 재질의 미적 형식원리의 측면에서 진행되며, 여기에 형태상의 질적 특성과 복식에 표현되는 직관적 형상을 중심으로 한 형태연구를 통해 유추해 낸다.

초기 미학 이론으로 미의 본질을 객관적 관점으로 연구한 피타고라스 학파는, 미란 물질적 대상의 형식 구조 속에 표현되는 자연의 객관적인 법칙이며 미적 대상은 존재적 제1단계인 구체적 재료와 소재에 존재적 제2단계인 질서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를 의복이라는 대상 형식 구조에 대입해 해석한다면, 의복 디자인의 객관적 법칙에서 얻어지는 조형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형미란 선, 색, 재질의 구체적인 재료와 소존재적 제2단계인 비례, 균형, 리듬, 통일의 조형원리에 따라서 질서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의복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결국 조형미는 조형요소(선, 색, 재질)가 조형원리(비례, 균형, 리듬, 강조)에 의해 구성된다. 그 결과 조형요소가 조형원리에 의해 조화를 이룬 정도에 대한 관찰자의 반응을 미적 반응(평가)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양적과장 복식의 조형미 탐구 역시 조형원리에 의한 관찰로 유추한다.

3) 복식의 미와 양적과장 복식의 미의식

예술의지를 가진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복식은 미적대상으로서 형식과 내용을 가진다. 복식의 형식은 형태, 색채, 재질, 무늬등의 현상형식과 미적원리의 관계형식이 될 것이며, 복식의 내용은 물질적 대상으로서의 복식을 통하여 표출되고 있는 정신이거나 복식이 상징하는 바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복식미는 미의식의 주객체의 상호 작용하에서 성립될 터이므로 복식이 가지는 형식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관여한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을 밝히는 즉 주, 객관적 미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복식미를 밝힐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적대상으로서의 인체와 복식을 미의식의 객체로 보고, 만드느이, 입느이, 보는 이를 미적 가치의 주체로 볼때, 인체와 복식, 그리고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미의식이 성

립된다.¹²⁾ 따라서 복식의 양적과장 현상에 의해 분석된 형식미와 내용미의 객관적 미를 근거로 하여, 양적과장 복식을 착용하는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과 양적과장 복식에 따른 인간의 상호 작용을 유추하여 주관적 미로서의 양적 과장복식에 대한 미의식을 규명한다.

Ⅲ. 복식의 양적과장의 미적특성

선정된 시기의 복식을 고찰하여, 앞장의 내용미와 형식미를 미의식 조명에서 밝힌바와 같이, 양적과장된 복식의 외적형식으로서의 가시적 현상을 복식 조형론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그 조형적 특성과 조형미를 <표 1>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적 대상의 내면적 형식, 즉 내용은 동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양식 등을 조명하여봄으로서 복식 양적과장 현상을 지탱하는 의의적이고, 정신적인 내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이상의 양자 형식과 내용에 의존하여 도출해낸 미를 객관적 복식미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객관적 보편성을 지닌 미적 가치들을 범주화시켜 유추하여 <표 2>를 통해 제시하였다.

Ⅳ. 복식의 양적과장의 미의식

복식의 양적과장 현상의 본질을 규정하는 미의식들을 추려보면 (1) 은유적 관능성, (2)의외적 파격성, (3) 자아확대적 충만성, (4) 위엄적 숭고, (5) 부와계급의 상징성, (6) 격식적 의례성, (7)귀족적 전통성, (8)심미적 장식성, (9)시대적 이상, (10)시대의 인체이상형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시대에 따른 복식의 양적과장의 형식미(외적조형)

형식미 시대	양적과장 부위	양적과장의 방향	양적과장복식의 부분과 대표적 복종	디자인 원리적 특징	양적과장의 표현특성
이집트	머리, 가슴	· 상방형 · 전후좌우형 · 전방형	· 장신구(벨트, 파시움, 왕관) · 가발 · 스커트 앞자락(트라이 앵글러 에이프런)	· 대칭, 집중, · 균형, 방사	· 기하학적, 규칙적 · 염원추구형상화, 주술성 · 엄격함(형상모방적)
고딕	머리, 팔, 다리 어깨와 가슴 (남성) 배(여성)	· 상방형 · 하방형 · 전방형 · 좌우형	· 모자(에닝, 뿔두건, 릴리파이프 등) · 소매(우플란드) · 스커트(쉬르꼬, 쉬르꼬두베르) · 신발(뿔렌느)	· 반복, 대비, 통일, · 부조화	· 수직 지향적, 부조화 · 기괴성, 의외성 · 형상 모방적 · 종교적 이상 · 형태 가변성 (인체 움직임에 의한)
르네상스	목, 팔, 어깨, 발 엉덩이(여성), 가슴과 하체 (다리제외, 남성)	· 전후좌우형 · 상방형 · 전방형 · 좌우형	· 카라(러프), 소매(로브) · 스커트(로브) · 소매와 몸판(남성의 뿌르뿌엥, 자켓트 등) · 바지(남성의 투루스), · 신발(쇼핀느)	· 연속, 반복, 방사, · 규모, 균형, 평행, · 조화, 대칭, 통일	· 수평지향적, 완전성 · 확대 부위의 화려한 · 외관 장식 · 정교함, 압도적, 스케일 · X실루엣의 확대 · 조화와 균형
바로크	가슴, 엉덩이 (여성), 머리와 하체 (남성)	· 전후좌우형 · 좌우형 · 후방형 · 하방형	· 가발(남성) · 헤어(여성의 뽕당주) · 스커트, 플랫카라 · 소매와 스커트 부분 (남성의 쥐스토꼬르)	· 부조화, 불균형, · 반복, 대비	· 의외적 · 부조화
로코코	가슴, 엉덩이 (여성)	· 전후좌우형 · 하방형 · 후방형	· 스커트(로브)	· 균형, 조화	· 감각적, 정적 · 우아함
		· 전후좌우형 · 좌우형 · 상방형 · 후방형	· 스커트(로브) · 헤어와 레이스장식		
로맨틱	가슴, 어깨, 팔, 엉덩이(여성)	· 전후좌우형 · 상방형	· 드롭된 소매(드레스) · 어깨장식(드레스) · 스커트 · 모자	· 반복, 연속, · 균형, 평행	· 수평적 · 르네상스의 모방 · X- 실루엣의 확대
크리놀린	가슴, 엉덩이	· 전후좌우형 · 하방형 · 후방형	· 스커트(드레스)	· 규모, 부조화, · 집중, 대비	· 스커트의 초대형화 · 놀라움, 충격적 · 부조화, 불균형
버슬	가슴, 엉덩이	· 후방형 · 하방형	· 스커트(드레스)	· 대비, 집중	· 엉덩이 뒤쪽만 확대 · 의외성, 돌연함
아르누보 시기	X라인: 어깨, 엉덩이 S커브라인: 가슴, 엉덩이	· 전후좌우형 · 하방형 · 후방형 · 좌우형	· X라인: 소매(드레스, 자켓), 스커트(드레스) · S커브라인: 상의의 앞판(가슴 에서 허리에 이르는 모자	· 반복, 평행, 통일 · 율동, 연속, 조화	· X실루엣, S커브실루엣 의 확대 · 유연성, 곡선적, 피상적 매끈함

<표 2> 각 시대에 따른 복식의 양적과장의 내용미(내적의미)와 미의식

내용미와 미의식 시대		내용미(내적의미)	미적범주 개념들	미의식
이집트		· 자연물 숭배 · 영혼 불멸, 연속성 · 세계에 대한 지배욕 · 주술성, 초자연 · 계급과 권위의 상징	· 대칭, 균형, 완전 · 위엄, 당당함 · 규칙적 · 초감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유적 관능성 - 유희적 파격성 - 자아확대적 충만성 - 위엄적 승고 - 부와 계급의 상징성 - 위엄적 의례성 - 귀족적 전통성 - 심미적 장식성 - 시대적 이상 - 시대의 인체 이상형
고딕		· 다산 열원, 부의 과시 · 종교적 신비, 정신 · 고딕양식의 이상 · 중세인체의 이상 · 섹슈얼리티(남성)	· 신비로움 · 초감성적 · 대조적, 높이, 연장 · 의외성, 놀라움, 기괴함 · 착오적인 모순	
르네상스		· 인간적 위대성 · 현세적 관능성 · 부와 권력의 상징 · 위엄과 권위의 표상 · 완벽성 · 르네상스 양식의 이상	· 정교함, 양감 · 화려함, 웅장함 · 압도적, 엄격함 · 완벽함, 경이로움 · 위대함, 당당함 · 조화, 균형, 비례	
바로크		· 육체적 관능성 · 부와 권위의 상징 · 르네상스의 모방	· 의외적 · 모방적	
로코코	전반부	· 여성적 우아함 · 이성과 감성의 조화 · 로코코 예술의 이상	· 섬세함 · 감성적인 · 정적인 · 조화	
	후반부	· 쾌락적 유희성 · 부와 권위의 상징 · 육체적 관능	· 유희적, 쾌락적 · 충격적, 무절제 · 해방, 자유로움 · 부조화, 몰 형식성 · 왜곡, 모순	
로맨틱		· 귀족중심 사회로의 복귀 · 부와 권위의 상징 · 육체적 관능성 · 낭만주의적 이상	· 감성적 · 고전적 · 우아함 · 낭만적	
크리놀린		· 여성의 모성성의 상징 · 귀족적 전통의 계승과 상징 · 여성의 육체적 관능성 · 남성에게로의 복종, 종속성	· 경이로움 · 모순 · 착오적 · 현격한	
버슬		· 여성의 모성성의 상징 · 남성에게로의 복종, 종속성 · 육체적 관능성 · 합리적 실용성 · 여성의 사회적 자발성	· 특이한 · 감각적 · 새로움	
아르누보시기		· 시대적 예술의 이상 · 육체적 관능성 · 자연성	· 곡선적 유연성 · 섬세함, 매끈함 · 자연스러움	

1. 은유적 관능성

푸루겔(J. Flugel)은 유행이란 의복의 강조라기 보다는 실제의 신체부위에 대한 강조이며, 패션을 '성적 부위의 이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있다.¹³⁾ 웨스터마크(Westermarck)는 신체의 특징을 감추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조하거나 과시하는데 의복의 역할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버(James Laver)는 '에로틱 또는 유혹의 원리'라는 논의를 통해 역사적으로 여성 신체의 다리, 가슴, 등 또는 엉덩이 세 부분이 한 시대에 하나씩 계속 강조되며, 에로틱한 부위의 교체가 있었다고 보고, 에로틱한 영역으로서의 신체 부위를 명명하였다.¹⁴⁾ 즉 성적인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 여성의상들이 갖는 제1원칙이며, 반면에 남성의 의상은 위계 원칙 (사회에서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다.¹⁵⁾ 글린(P. Glynn)은 유행의 목적은 이성애(궁극적으로 자손의 번식)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충동 이상의 것으로 이는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조직화되는, 또한 남성과 여성이 각각 다르게 조직화되는 복잡한 사회 구조물이다. 전체 문화 속에서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조직화되는 방식에 따라 복식에서의 성적인 표현의 관습이 생겨난다.¹⁶⁾

서양복식사에서는 이집트 시대에서 중세 비잔틴까지는 복식을 통해 드러나는 성의 차이가 거의 없다가 중세 말기 고딕시대로 넘어 가면서 의복의 입체화 과정을 거치며, 비로소 복식에서의 남녀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¹⁷⁾ 서양복식에서의 성을 위한 인체의 의상들은 성상징의 양적과장과 축소, 노출, 밀착 등으로 나타나는데, 허리를 조여 축소하고 가슴을 크게 받쳐주거나 노출하며, 엉덩이와 골반을 부풀려 양적과장하여 표현된다.

인체의 각 부위는 상징성을 가지는데 복식이 강조한 인체 부위의 상징성에 따라 복식의 형태가 다르게 연상되고 인지된다. 해부학적 구조상으로는 성기관과 성징이 나타나는 부위를 제외하고 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신체 비례상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화는 이러한 차이를 상징화하여 변형시키고, 규범

화하여 다른 인체로 재구성하고, 따라서 인체는 성과 관련이 없는 부위도 상징화되어 성의 의미를 갖게 된다. 에컨대 발이 성징으로 암시되어 르네상스 시대에 베니스의 창녀들이 애용한 것으로 알려진 30인치에 달하는 굵이 달린 슬리퍼인 쇼핀느와 남근의 상징적 과장으로 알려진 고딕시대의 뾰족한 남성신발인 뿔렌느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복식의 양적과장 현상은 독특한 성을 지닌 환상적인 신체개념에 몰두하여, 환상으로부터 만들어진 물질적 형태, 바로 그 형식 속에 내재된 독특한 개성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다. 서양복식의 양적 과장에 있어 성적인 상징으로 관능미를 암시적으로 표현하여 양적 과장되는 인체 부위는 여성의 경우 엉덩이와



<그림 1> Akira Ishiyama, The Charm of Art Nouveau, p. 25.

골반인데 이 부위의 양적과장 현상은 거의 모든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낭만주의, 크리놀린 시대, 버슬시대(그림 1), 아르누보 시대 등에 지속적으로 엄청난 규모를 지향하며 약간의 크기의 차이와 양적과장 모양의 다소간의 변화를 허용하면서 확장되고 있다. 가늘게 조인 허리와 부풀린 골반과 엉덩이는 콜셋으로 조이고 파팅게일, 크리놀린 등의 버팀대로 부풀려 여체의 성적 특징에 대한 인위적인 강조를 통해 성적인 에로티시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험입는 남성으로서의 에로티시즘이 큰 어깨와 넓은 가슴을 가진 역삼각형의 몸매에 대한 환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어깨와 가슴에 패드를 넣어 인위적인 양적과장 패션을 추구하게 된다. 고딕 시대의 우플랑드(houppelande)와 뿌르뿌엥(pourpoint), 르네상스의 뿌르뿌엥과 자케트(jaquette) 등의 남성상의와 외투 등은 어깨와 가슴을 부풀려 남성적인 에로티시즘을 강조한 관능적 표현의 대표적인 양적과장 복식이라 하겠다.

2. 의외적 파격성

미학에서의 미적범주 들인 골게와 추의 미는 본고에서 제시한 의외적 파격성과 유사한 범주개념들이다.

골게는 기대한 것과 모순되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의외성 때문에 느껴지는 놀라움, 환멸감 등의 불쾌감이 유희적 태도에 의해서 극복되면서 느껴지는 미적 쾌감을 골게라 한다. 추는 미(협의의 미)와 대립되는 범주로 '추'의 충격효과는 미적 인상에 활기와 생동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추를 느끼게 하는 미적대상의 형식적 특징은 무형태, 불균제, 부조화의 '물형식성'이며, 내용적 특징은 '왜곡'이며, 표현적 특징은 '부정확성'이다.¹⁸⁾

다양한 복식차용동기 이론 중 니스트롬(Nystrom)은 유행동기에 대하여 청년기에 있어서의 권태로움, 자기표현 혹은 색다르게 보이고 싶은 욕구, 관습에 대한 반항, 동료의식, 모방심리 등이 관련된다고 보았다.¹⁹⁾ 사회심리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간의 다양한 사회적인 욕구 중 새로운 경험을 찾는 욕구는²⁰⁾ 일상의 반복 속에서 적당하게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여 지루함을 떨쳐 버림으로서 생활의 균형을 취하고 있는것이다. 이렇듯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욕구는 신선함을 주어 생활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 이러한 경험과 자극을 추구하는 심리적 욕구는 복식에 있어서 양적과장 복식의 파격적이고도 왜곡된 형식적 특성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내면적 요인이 된다. 고딕 시대의 프랑스 찰스 6세의 왕비인 바바리아의 이사벨라는 거대하게 불쑥 튀어나온 뿔모양의 머리장식을 도입했다. 이 기형에 붙여진 이름은 에벙이었는데 중세 교회로부터 악마의 도구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궁정의 여성들에 의해 빠르게 채택되었고 개인은 가장 크고 가장 멋있고 가장 기괴하게 착용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서로 경쟁하였다.²¹⁾ 고딕 시대는 에벙 뿐 아니라 양쪽으로 갈라진 뿔두건이나 끝이 뾰족하게 늘어진 릴리피프(liripipe) 등의 모자에서에서도 균형이나 비례, 조화 등의 원리가 무시된 채 엄청난 크기와 인체의 형태와는 무관한 뾰족한 형상으로 인해 부조화적이고 의외적인 충격효과를 주고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앞 끝이 30cm가 넘는 뾰족한 신발인

뿔렌스와 톱니바퀴, 성곽, 나뭇잎, 스칼럽 등 특이한 모양을 한 거대한 규모의 소매가 달린 우플란드에서도 유사한 의외성과 충격, 파격의 반응을 감지하게 된다.

바로크 시대의 대형 남성 가발에서는 부조화와 모순을, 로코코 시대에 마차의 지붕을 뜯어내고 앉아야만 했던 초대형의 기괴한 머리 장식을 없애는 헤어 스타일(그림 2)에서는 역시 부조화와 모순, 의외성, 놀라움을 느끼게 한다. 엘리자베스 헐록(E. B. Hurlock)은 긴 역사 중에서도 18세기에는 머리의 기형이 그 절정에 달했는데, 1730년경부터 시작하여 머리장식은 매년 더 정교해져서 18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문명국들이 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기형이 나타났다고 평했다.²²⁾ 그리고 부정확한 모양으로 부풀려졌던 마리앙뜨와네트의 로브 아 라 폴로네이즈(robe à la polonoise)의 스커트에서는 무형태, 물형식, 불균형, 왜곡의 표현을 통해 유희와 쾌락으로 대리 분출되는 미적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역시 바로크 시대에 영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넓은 직육면체형의 스커트로 구성된 만투아(mantua)(그림 3)에서는 왜곡, 모순, 놀라움 등이 느껴진다.

이와 같이 복식의 양적과장이 인체의 형태와는 전혀 무관하게 형식적인 파격을 줌으로서, 모순이나 충격, 왜곡, 의외성의 미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강한 충격 효과와 더불어 유희와 쾌락으로 극복되는데, 여기에는 의외적 파격성의 미의식이 내재됨을 볼 수 있다.



<그림 2>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p. 268.



<그림 3>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p. 250.

3. 자아 확대적 충만성

많은 복식사회심리학자들이 양적과장 복식이 자아확대감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프루겔(J. Flugel)은 “사람들이 자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복을 입는다고 믿었다. 의복은 신체 외형적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에게 더 큰 힘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착용자의 운동감을 증진시켜 행동을 과장시키는 경향이나 중요성의 느낌이 증진되도록 기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복은 ‘확장된 자아’의 일부가 될 것이며 자아존중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²³⁾”고 하였다. 마릴린 혼(M. J. Horn)과 루이스 구렐(L. M. Gurel)은 “의복은 신체적 자기를 확장시키는 기능을 한다. 대상과 신체가 접촉하게 될 때 의식되는 자기의 존재는 대상의 끝부분으로 까지 확장되며 따라서 크기, 힘, 무게, 강도, 운동감을 증대시킨다. 개인마다 신체 한계 너머로 자기감이 양적과장 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의복은 확실히 물리적 신체의 한계에 대한 개인의 이미지를 강화 또는 약화시킨다. 신체 확장으로서 의복은 자기의 신체적 한계를 설정하는 제2의 피부 역할을 한다.”²⁴⁾고 피력했다. 로츠(M. E. Roach)는 “의복은 신체와 상호작용을 하는 유사-생리적 체계로써, 신체의 확장이고 변형체이다.”²⁵⁾고 했다.

따라서 우리는 옷을 통해서 우리자신의 정체감을 정의하므로, 옷은 신체의 연장 혹은 일부 욕망의 지표이다.²⁶⁾ 양적과장 복식은 체적적 연장이 자아확대와 동일시됨으로 인해, 만스로우(Manslow)가 제시한 인간의 기본욕구인 자존감(존경)의 욕구를 표출하는 지표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즉 양적과장 복식은 복식에 의한 외적인 신체확장이 착용자의 내면에 자아신체의 확장과 자아내면의 확장으로 받아들여져, 자신의 신체능력을 확대시키고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미적인 능동성을 갖게 해 주게 되는 것이다.

이집트왕의 거대한 목걸이와 태양을 이고 있는 듯한 왕관, 앞을 향해 뻗어나간 듯이 확장된 트라이앵글러 에이프린, 고딕시대의 헤어드레스와 거대한 규모의 우플랜드, 로코코 시대의 크고 높은 기괴한 헤어스타일과 모자들, 르네상스 시대의 부풀린 소매와

어깨와 목장식인 러프, 바로크, 로코코, 르네상스, 근대의 버팀대를 이용해 엉덩이를 부풀린 스커트들, 웨딩드레스처럼 땅 끝에 끌리는 긴 스커트자락, 르네상스 시대의 30cm이상 되는 굽높은 쇼핀느와 고딕 시대의 앞끝이 뾰족한 빨렌스(그림 4), 르네상스 시대의 가슴과 어깨에 패드를 넣어 잔뜩 부풀린 남성상의 등, 복식역사상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양적과장 패션들은 그 시대에 그 의상을 착용한 이들에게 분명 양적과장 패션이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환상에 몰입되어, 자신이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커지는 자아충만감에 매료되었을 것이다.



<그림 4> 백영자, 유효순, 서양의 복식문화, p. 158.

바로 양적과장된 복식은 새로운 환경적 공간이 강조되어 인간의 신체 이외의 에워싸고 있는 공간에 여러 가지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확장된 인체를 갖게 되는 것이다.²⁷⁾

4. 위엄적 숭고

미학에서의 미적범주 중 하나인 숭고미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객관적 측면의 특징으로 인간이 맞서고 있는 대상이 수량이나 힘에 관하여 직관적 파악의 한계를 초월할수록 절대적이고 불형식성, 물한계성을 나타내며, 주관적 특징으로는 주체가 대상에게 압도됨과 동시에 그와 반대로 자기를 높여간다는데에 쾌, 불쾌의 혼합감정인 긴장감정이 생긴다. 숭고란 고통, 위험, 공포같은 관념이 직접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서 존재할 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쾌감으로 그 특징은 위력, 길이, 높이, 깊이 등 연장성과 무한성이다. 숭고를 상징하는 중심적인 단어들은 불형식성, 물한계성, 초월, 압도, 긴장감, 높이, 비범, 웅장, 무한, 경이, 장중, 무한성, 초감성적 위대함, 원대함 등으로 정리된다.



<그림 5> Brnwyn Cosgrave,
Costume & Fashion, p. 121.

르네상스 복식은 역사상 가장 웅대한 복식으로 권위의 숭고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의 러프칼라(그림 5)와 얼굴과 목, 어깨 뒤에 후광처럼 빛나는 보석 장식의 레이스는 엄청난 규모의 소매와 스커트와 더불어 여왕의 절대적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며 품위와 당당함에 범접할 수 없는 숭고함을 느끼게 하여, 다른 귀족과 백성들에게 경외와 존경심을 유발하게 했을 것이다. 또한 헨리 8세의 패드와 퍼프로 부풀린 거대한 의상에 온갖 보석으로 장식하여 역시 국왕으로서의 위엄과 절대적인 권위가 느껴진다. 이집트왕 파라오가 착용한 복식의 확장공간들은 세계를 영원히 지배하는 신성을 가진 태양의 현현체(顯現體)로서의 위엄적인 숭고가 드리워져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왕의 의상들은 당시의 귀족들에게 '존경을 표방하는 모방'의 심리에 의해 모방되어졌고, 왕들은 그들과의 구별을 위해 더욱더 극적인 확장패션을 추구하였을 것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에 대해 표명되는 호의나 관심도를 포함한다. 의복의 지위 범주는 지각자의 존경행동에서 주요한 요인이 된다. 귀족사회에서 통치자가 환경에 의해 강제로 의복이나 행동에 있어서 중정의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도록 했을 때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통치자들을 모방한다. 이는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모방으로 구성된 "존경을 표시하는 모방"으로 알려져 있다. 카이저(S. Kiser)는 "귀족정치에서는 계급구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보다 낮은 사회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은 그들의 우월자로 평가한 사람들과 같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했고, "패션선도자들은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추종자들을 발견할 때 그들 자신을 추종자들로부터 구분함에 있어 최소한의 저항은 독창적인 스타일을 처음보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럼으로 패션이 일단 받아들여진 후 그것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기 전에 극단적인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²⁸⁾고 하여 권위자의 양적과장 복식이 위엄적 귀족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에게 전파되는 사회심리와 또 더욱더 양적과장 현상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패션의 속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분명히 군주의 양적과장 복식에서 절대 우위를 드높이는 위엄적 숭고미를 느낄 수 있었고 그 느낌은 모방을 자극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5. 부와 계급의 상징성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는 특유의 욕구인 사회적인 욕구 중 사람들로 부터 인정 및 칭찬을 받고 싶은 사회적 승인의 욕구와 우월감을 느껴보고 싶은 욕구²⁹⁾는 서양복식 표현에 있어 양적과장 현상을 야기시킨 주요한 인간의 내면심리이다. 복식은 인간관계의 범주를 나타내며 가장 신체에 가까운 표시이고 복식의 전체나 부분에는 사회적인 의미가 부가된다. 베블렌(Thorstein Veblen)의 유한계급 이론에 의하면, 의복 행동의 동기를 유한계급의 표시라고 지적하고, 상류계급의 경제력과 지위를 자랑해 보이는 '과시의 소비'로서, 의복의 지위이론을 주창하였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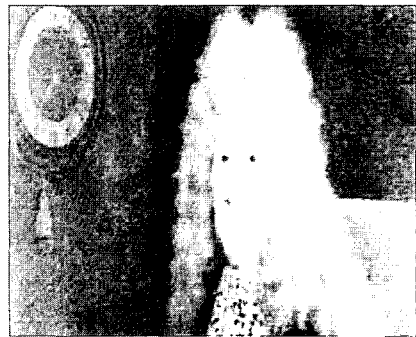
역사를 통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은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때로는 노골적인 과시행동으로 그들의 부를 나타내는데 의복을 사용했다. 부는 항상 사회적 지위와 연관되어 왔으며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소유하는 부도 증가되었다. 그러므로 왕실과 귀족의 의복은 항상 부를 과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그들의 국민들로부터 경외와 존경을 얻는 여러 방법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 계층 체계가 중요할수록 또한 계층간의 경계선이 엄격할수록 이련식의 과시의 필요성은 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과시는 항상 나타나고 있다.³¹⁾ 그리고 인간관계의 서열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 자주 복식의 색이나 형태, 문양,

천의 질이 서열을 표시하는 기호로 사용된다. 이때 서열이 높은자는 위엄있는 복식을 걸치고 서열이 낮은자가 이것을 우러러 보는 시선으로 보다 높이 생각하게 하는 신비한 정책을 행한다. 신분이나 격식의 차이는 복식에 의해서 분명하게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서열의 상하에 따라서 개인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지시한다.³²⁾ 복장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인간의 외면적 모습에서 유래되어 겉모습을 과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그를 특색으로 하는 방향과 성격이 강조되며 경진(競進)을 거듭하다가 극단적인 상태에 까지 도달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이 작음하면 일종의 심리적인 흥분상태가 고조되어 가속되어 극단적인 진전으로 극점에 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경진반전(競進反轉)의 원칙). 의복을 통한 과시, 즉 우월감의 표시는 상대에 대한 반응을 더욱 의도적으로 한다. 이 경우 상대라는 것은 자신과 의복을 과시하려는 경쟁자이다. 이러한 경진의 심리상태에 빠지게 되면 각자가 놓여있는 이상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며 상식적인 제도도 곤란해져 복식의 정상적인 한계를 넘어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경진 심리현상은 민족, 시대, 또는 문화 수준에 있어서도 공통된 것이지만 근세에 있어서는 더욱 현저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 있어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혼란의 시대보다 평화의 시대에 현저하게 나타나며, 하류계급보다는 상류계급 사이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근세는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전했으나 기계문명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과학은 아직 진전되지 않았으며 봉건제에서 우위를 과시하는 시대였으므로 경진의 심리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³³⁾

고딕의 우플랑드는 폭넓은 소매와 품으로 많은 분량의 원단이 소요되었고 값비싼 재료로 장식해 신흥 부르주아들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는 자연과 인간을 인식함으로써 중세적 경건을 버리고 현세중심적 사고와 세속에 대한 강한 집념 즉 명예, 재산, 지위, 권력에 대한 욕망과 만능적인 인간상을 추구하는 개인주의는 더욱 이러한 과시욕구의 강한 토대를 이루었다. 따라서 귀족과 귀족화한 부유한 부르주아 상인들은 그 현세적 욕망을 달성하여 성공한 계급으로서 자신을 돋보이

고자 하였다. 그들은 과장된 외관과 화려한 장식으로 상류계급의 권위와 부를 상징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크리놀린과 벼슬의 시대는 가정과 사회의 영역에서 상승된 여성의 지위가 그들의 풍성한 몸집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몸에 비해 훨씬 컸던 그 의상은 그들의 아버지와 남편의 부를 최고로 과시해 준 것이었다.³⁴⁾

유럽 의상의 역사는 말 그대로 어떤 필요한 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스타일 면에서 풍부하고 여유가 많았다. 즉 마루까지 끌리는 소매자락, 쥘과 파우더가 된 큰 가발(그림 6), 직경 6피트 길이의 끌리는 옷자락, 머리를 돌리거나 허리 아래를 내려다보지 못하게 했던 워플(wimple), 크라바트(cravat), 러프 등 이러한 의상은 비생산적인 생활을 요구했고, 또 계속적으로 노예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³⁵⁾ 결국 이런 양적과장복식이 부를 소유한 고위의 계급임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표시가 된 것이다.



<그림 6>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p. 228.

6. 격식적 의례성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발달 뒤에는 항상 의례적인 제도가 수반되며, 의례행위에 대한 정서적 의미 때문에 의식행위를 갖게된다. 의례는 개인의 지위와 관계된 의식을 다루는 통과 의례(rites of passage)와 전체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다루는 강화의례(rites of intensification)가 있다. 혼례, 장례, 성인식, 즉위식 등의 통과의례는 이행이 정식의 절차를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새로운 자격 획득의 정당성을 일반사회에 선언하는 의식이다. 강화의례는 전체공

동체에 의해 공유된 사건이나 경우를 표시하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며 일체감을 도모하는 의식을 포함한다. 따라서 의례시에는 일상과는 다른 성스러운 시공간을 나타내기 위해 일정한 관습에 따른 특별한 의상이나 도구, 음악, 무용, 특이한 몸짓이나 언어가 사용된다. 그리고 이행수속은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이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통과 의례에 쓰이는 복식은 다른 차원의 시공간을 나타내기 위하여 당사자와 참석자는 일시적으로 일상의 복식보다는 과장되며 화려하고 고풍스러워서 눈에 띄기 쉬운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통상적인 복식의 과시나 과잉, 혹은 일상적인 복식으로부터 이탈에 의하여 보다 형식적이고 보다 현실미가 적은 형태를 취한다. 이 보통의 차림과는 다른 형태나 착장의 방법에는 관습 혹은 전통적인 확고한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이 의미가 의식의 성스러움이나 주술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36)

이집트 시대의 대형왕관과 허리띠, 대형 목걸이인 파시움, 삼각형으로 돌출과장된 트리아앵글러 에이프런 등은 태양신으로 부터 부여된 절대권력의 상징과 함께 제의식을 집전하는 왕의 성스럽고 엄숙한 의례미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바로크의 남성이발은 패션인 동시에 성장차림의 필수품으로, 의식과 의례시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품목으로 오늘날 까지도 영국의 법정에서 법관들이 착용하는 의례용 필수품이 되고있다. 19세기 유제니 왕후가 등극식에 입은 크리놀린은 스커트의 놀라운 규모에 거부감이 일기보다는 오히려 엄숙한 등극식의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왕후의 기품을 높이는 격식있는 의례미를 불러일으켜 당대의 최고 유행패션이 되었다. 나폴레옹 1세 대관식에서 조세핀이 착용한 가운의 땅에 끌리는 긴 트레인이 역시 기품있는 의장미로 의례의 격식을 높여주고 미적감흥을 불러일으켜, 상당히 비실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례 이후 귀족들에게 유행패션이 된다.

7. 귀족적 전통성

전통이란 '역사적 배경을 가지며 특히 높은 규범적 의의를 지닌 것'을 의미하는데, 복식에서의 전통미

는 복식의 구조나 색채, 문양 등에서 옛것을 지키려는 보수성을 보이며, 전통성을 고수함으로써 복식의 미적표현을 성취한다. 37) 서양복식사에 있어 여성의 스커트를 양적과장한 복식은 전통적 여성의 역할과 상징으로 표현되는 아이를 출산하는 모성성과 성적인 관능의 여성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은유적 암시로 인해 실로 오랜 역사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극도로 과장된 스커트는 비활동성으로 인해 누군가의 시중을 필요로 하는 부와 권력의 소유한 귀족계급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했다.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에 이어서다 잠시 백이 끊긴 과장된 스커트는 19세기 초 왕정복고기에 귀족 중심사회로 복귀하면서 버팀대를 이용한 부풀린 스커트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는 자국의 르네상스시대에 대한 동경으로 신르네상스 스타일이라 불리우는 로맨틱 스타일이었다. 뒤이어 나폴레옹 3세 시기(영국의 빅토리아 전기)에 18세기의 귀족적 분위기를 동경하여 로코코 스타일을 다시 부활시켜 역사상 가장 치마폭이 넓은 크리놀린(그림 7)을 착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귀족중심사회의 복귀는 바로 스커트의 양적 부활로 직결되었다. 이처럼 양적으로 과장된 스커트는 특유의 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귀족 신분의 암시성으로 인해 오랜 역사 속에서 귀족 여성들의 복식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림 7>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p. 314.

8. 심미적 장식성

복식의 기원이나 본래 기능에 대한 주요 이론은 정숙성이론, 비정숙성이론, 신체보호이론, 그리고 장식성이론이다. 그중 장식성 이론은 복식양적과장 현상의 발생 배경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장식의 욕구로 의복 자체가 장식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양적과장 현상 이야말로 인간의 장식에 대한 욕구를 제외하고는 설명되어 질 수가 없다.

또한 의복의 기능적인 측면을 실용적인 측면과 미적 측면, 상징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³⁸⁾ 양적과장 현상은 의복의 실용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오히려 방해하며 형성되는 현상으로 미적 측면과 상징적 측면이 일방적으로 강조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미적 측면과 상징적 측면으로의 표출은 인체의 보호나 편의를 제공하기 보다는 신체를 장식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와같이 복식의 양적과장 현상은 장식의 욕구가 미적이며, 상징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양적과장 복식은 미의식과 관련된 인간의 욕구와 관련지어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서는 이해하기 힘들다.³⁹⁾ 양적과장 복식은 하나의 예술 표현인 동시에 그 시대상의 반영이기도하다. 가랜드(Madge Garland)는 모든 인간은 타고난 고유의 취미로 기교를 부려 마음에 드는 자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⁴⁰⁾ 이는 신체의 부분을 축소 또는 과장하며 인위적인 장식을 통해 자신의 미적 완성과 성적 매력을 다하고자 노력함으로써 패션을 창출함을 말한다.

9. 시대적 이상

사회내에서 집합적으로 선택된 스타일은 시대사조, 즉 시대정신에 따라 바뀌어 나타난다. 수많은 복식의 스타일이 생성되지만, 실제로 소수만이 패션이 되며,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입혀진 것은 패션이 아니며, 패션이란 견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총수(count)라고 한다.⁴¹⁾

문화는 기술(물질적인 문화), 사회구조,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이다. 패션

의 시대적인 유행 디자인(형태, 형, 공간, 선, 색, 소재)에 관한 연구는 그 시대의 다른 특성과 복식과의 흥미있는 관계를 나타낸다. 예를들면 고딕복식과 장식들은 그 시대의 타피스트리(tapestries)와 보석들에서 들어나듯이 세부적인 디테일(detail)에 맹목적으로 기초를 두고있다. 고딕복식의 길이는 고딕건축의 높이에서 오는 정신과 형태에 부합된다. 뾰족한 첩탑은 험라인(hemline)을 제시하고, 뾰족한 신발코와 뾰족한 모자 예냉은 문의 뾰족한 아치를 모방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르네상스시대의 복식은 인체를 넓히도록 고안되었는데, 넓고 사각이진 넥크라인과 분리할 수 있는 소매가 달린 패드를 댄 넓은 어깨(그림 8), 짧은 클록(clock)의 부풀린 어깨 등은 르네상스 건축의 육중한 덩어리 형태를 모방하였다.

19세기 낭만주의 예술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버리고 자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동경한 '신 르네상스'로 인해 르네상스의 양적과장 복식인 X실루엣이 부활하여 부풀린 소매에 폭 넓은 스커트가 다시 부활하였다. 19세기 후반의 버슬은 그 당시의 정신적, 미술사적인 사실주의에 의해 더 이상 커질 수 없이 커



<그림 8> Brnwyn Cosgrave, Costume

진 크리놀린 스타일의 거부에 연유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태동된 아르누보 양식의 곡선적이며 유기적인 장식양식은 어깨와 엉덩이를 확장한 아우어글래스 스타일과 X라인, 가슴과 배를 잇는 부분과 뒤쪽의 엉덩이를 확장한 S커브 라인 등의 과장패션을 촉발하였다. 이와같이 과장패션은 각 시대의 이념과 사상, 시대사조와 정신의 발현체로서 동시대의 시대적 이상미를 반영하고 있다.

10. 시대적 인체이상형

인체의 이미지는 역사적으로 사고체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복식이 착용자의 내면의 가치

관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한 시대의 사회구조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복식으로 표현되는 인체미는 사회의 고정관념 및 관념화된 이미지를 반영한다.⁴²⁾ 이처럼 각 시대의 인체에 대한 미의식은 그 시대에 특히 강조하는 인체구조와 이상적인 체형, 이상적인 인체비례를 갖게 되고, 바로 그 미의식에 따라 복식의 형태가 생겨나고 착장방식이 선택된다. 그리하여 그 시대의 인체 이상형에 맞게 의도한 바대로 복식조형이 성립되는 것이다.

홀랜더(A. L. Hollander)는 인체의 이상화된 이미지는 각 시대마다 인체를 재구성하게 하는 당대 유행복식에 표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행의 변화에 따라 복식을 보는 관점이 변하고 나아가 인체를 보는 관점까지도 변하게 된다고 하였다.⁴³⁾ 그릭모어(A. M. Greekmore) 또한 각 시대마다 이상적인 인체 비례와 미의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지적하였으며,⁴⁴⁾ 글린은 인체의 구조에 대한 시대별 이상미와 복식형태의 관계에 대해 인체구조별로 그 예를 제시하기도 하였다.⁴⁵⁾ 로츠와 에이커(J. B. Eicher)는 복식의 타입을 분류하면서 복식이라는 단어가 인체의 재구성(body suppliment)과 인체변형(body modification)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주로 미학적인 측면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했다.⁴⁶⁾ 또한 그들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인체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미적 기준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이상적 인체형이 재구성되고 회구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복식의 효과를 변경시키는 인체의 특성으로 인체의 구조와 자세의 변화를 들었다.⁴⁷⁾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신체적 이상은 유행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실제로 어떤 주어진 시기의 신체적 이상과 의복 스타일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양적과장된 복식은 새로운 환경적 공간이 강조되어 인간의 신체 이외의 에워싸고 있는 공간에 여러 가지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확장된 인체를 갖게 된다.⁴⁸⁾ 양적과장 복식은 신체의 확장이고 변형체로서 신체와 색다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⁴⁹⁾ 그래서 양적과장된 의복의 변형은 인체구조에 있어서도 크기의 양적과장, 길이의 신장, 면의 확장 등 인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⁵⁰⁾

인체부위의 형태는 인체의 이상미를 추구하기 위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형되어 왔으며 인체에 착용

되어 미의식을 발휘하는 복식 역시 인체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어 시대에 따른 미적 복식인 패션과 인체부위는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아왔다. 즉 패션과 연관된 이상적 인체형의 영향을 받아 인체는 코르셋 같은 도구, 복식의 컷, 취한 자세에 의해 이상형을 지향하며 변형되어 왔다.⁵¹⁾

예컨대 고딕시대의 상방형 확장의 예닝(그림 9)과 하방형 확장의 쉬르코(surcot) 등의 치마자락은 마르고 큰 키의 고딕적 이상형 인체와 부합되었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풍만한 비만형 인체는 목, 어깨, 엉덩이를 과장시킨 로브 일습과 일치하였으며, 바로크와 로코코시대의 관능적인 인체 이상형에는 자연스런 어깨에 엉덩이를 강조한 실루엣과도 조화되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복식을 통해 양적과장된 인체의 부위는 그 시대의 인체에 대한 미의식과 인체 이상형에 도달하기에 적합하고 유용한 방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The Pine Press ed.

V. 결론

본 연구는 고대의 이집트, 중세의 고딕, 근세의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근대의 엠파이어, 로맨틱, 크리놀린, 아르누보 복식 등의 복식을 중심으로 하여, 복식의 양적과장에 대해 문헌을 고찰하였다. 각 시대별로 고찰된 복식의 양적과장 현상을 복식미 분석의 틀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미(조형적 특성)와 거기에 내재된 내용미(내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된 미의식을 범주화시켜 복식의 양적과장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은유적 관능성: 남녀의 성적 특징인 가슴, 엉덩이와 골반, 남성 심벌 등의 인위적인 양적과장에 의한 강조 뿐 만 아니라 실제로 발과 신발처럼 직접

적인 성적부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의해 독특하고 환상적인 신체개념을 어입시켜 성과 관련이 없는 부위도 양적과장을 시켜 상징화되어 성의 의미를 갖게한다.

둘, 의외적 과격성: 인체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양적으로 과장되며, 전체적인 비례와 균형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과격을 줌으로서 모순이나 충격, 왜곡, 의외성의 미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강한 충격효과와 더불어 유희와 쾌락으로 극복된다.

셋, 자아확대적 충만성: 복식에 의한 외적인 신체확장이 착용자의 내면에 자아신체의 확장과 자아내면의 확장으로 받아들여져(동일시 同一視) 자신의 신체능력을 양적과장 시키고,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고양시켜 미적인 능동성을 갖게한다.

넷, 위엄적 숭고: 지각자에게 존경행동을 유발시켜 이른바 “존경을 표시하는 모방”을 자극하며, 권위자의 절대적 권위와 위엄을 드높이는 아름다움을 느끼게한다.

다섯, 부와 계급의 상징성: 착용자의 자아내면의 우월감으로 자신의 우위를 스스로 고양시키고, 패션의 관찰자인 하위서열자에게 계급과 부를 과시하여 확인시키는 상징을 내포한다.

여섯, 격식(格式)적 의례(儀禮)성: 의장분위기의 다른 차원의 시공간을 나타내기 위해 일상보다 과장된 복식의 형태는 보는이나 착용하는이 모두에게 의식과 의례의 기품을 높이고, 그 예식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엄숙하고 장중한 의례미를 느끼게한다.

일곱, 귀족적 전통성: 여성의 양적과장된 스커트는 그 특유의 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귀족적 신분적 신분의 암시성을 인해 서양복식에 있어 귀족의 전통 여성복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세기 왕정과 귀족중심사회의 복귀는 스커트의 양적과장 현상으로 직결되어 귀족여성의 전통으로 상징되었다.

여덟, 심미적 장식성: 복식의 발생기원이 되는 이론으로 양적과장의 발생배경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자하는 인간의 장식욕구가 미적으로 표출되어진 것이다.

아홉, 시대적 이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한 시대의 사회구조를 반영하고 각 시대의 이념과 사상 시대사조와 정신의 발현체로서 동시대의 시대

적인 이상미를 그대로 반영하여 표현된다.

열, 시대적 인체 이상형: 시대의 인체미는 사회의 고정관념 및 관념화된 이미지를 반영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이미지에 따라 인체 자체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물리적 성질의 인체에 머무르지 않고 복식의 양적과장을 통해 시대의 이상에 맞도록 재구성한다. 복식의 양적과장은 동시대의 이상적 인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의미기호이다.

참고문헌

- 1) 이은영 (1989). 현대복식에 있어서의 예술성의 개념.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34.
- 2) 김청 (1979). 패션과 예술. 서울: 금호출판사, p. 237.
- 3) Alison Lurie, 유태순 역 (1986). 의복의 언어. 서울: 경춘사, p. 64.
- 4) 原田二郎 (昭和51年). 西洋服飾史. 東京: 原流社, p. 90.
- 5) 조규화 (1997).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p. 122.
- 6) 김영자 (1998). 복식미학의 이해. 서울: 경춘사, pp. 155-157.
- 7) 류기주 외 (1992).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 복식, 16(4), p. 360.
- 8) Marilyn Revell Delong, 금기숙 역 (1997).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서울: 이즘, pp. 49-50.
- 9) 위의 책, pp. 151-161.
- 10) Mary Lynn Damhorst, et. al. (1999). *The meaning of dress*, Fairchild Publication Inc., p. 128.
- 11) 오현정, 이은영 (1990). 의복에서의 조형미와 유행평가 연구. 복식, 14(4), pp. 246-247.
- 12) 김윤희 (1998).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나타난 미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58-59.
- 13) J. Flugel (1930).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Hogarth Press, p. 145, p. 201.
- 14) Susan B. Kaiser, 김순심 외 역 (1995).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경춘사, pp. 42-44.
- 15) Claudia Brush Kidwell · Valerie Steele (1989). *Men and woman*.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p. 42.
- 16) *Ibid.*, p. 44
- 17) 정홍숙 (1999).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157.
- 18) 최수현, 김민자 (2000). 복식의 미적범주. 복식, 23, pp. 200-202.
- 19) 이인자 외 (2001).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p. 29.

- 20) 자료출처: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galgi/daehagweon/ga.../002.ht>
- 21) Elizabeth B. Hurlock, 박길순 외 역 (1990). *복식의심리학*. 서울: 경춘사, p. 111.
- 22) Elizabeth B. Hurlock, 임숙자 외 역 (1990). *의복의 심리학*. 서울: 교문사, p. 194.
- 23) Susan B. Kaiser, 앞의 책, p. 41.
- 24) 마릴린 혼, 루이스 구렐, 이화연 역 (1995). *의복·제2의 피부*. 서울: 까치, pp. 156-162.
- 25) M. E. Roach, 이유허 역 (1990). *가시적자아*. 서울: 경춘사, p. 54.
- 26) 김혜경 (1998). 미술과 패션의 불편한 결합. *월간미술*, 8월호, p. 119.
- 27) 최병상 (1990). *조형*. 서울: 미술공론사, p. 30.
- 28) Elizabeth B. Hurlock, 박길순 외 역. 앞의 책, pp. 48-63.
- 29) 자료출처: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galgi/daehagweon/ga.../002.ht>
- 30) 박일록 역 (1999). *복장학의 길잡이*. 서울: 경춘사, p. 47.
- 31) Elizabeth B. Hurlock, 박길순 외 역. 앞의 책, p. 37.
- 32) 한경숙, 이민경 역 (1988). *복식표현의 위상*. 서울: 경춘사, p. 79.
- 33) 이순홍 외 (1998). *복식문화와 유행정보*.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pp. 33-34.
- 34) Alison Lurie. 앞의 책, p. 61.
- 35) 위의 책, p. 124.
- 36) 横川公子 외 (1998). *복식표현의 위상*. 서울: 경춘사, pp. 78-79.
- 36) 금기숙 (1994).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p. 168.
- 38) 이선재 (1988). *의상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p. 22.
- 39) 板倉壽郎, 이현숙 역 (1993). *복식미술학*. 서울: 경춘사, p. 38.
- 40) 박옥련 (1994). *복식과 인간*.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p. 237.
- 41) J. Jarow & K. Dickerson (1996). *Inside the fashion business*, N.J.: Merrill Prentice Hall, p. 53.
- 42) 김수경 (1998). 서양복식에 표현된 여성인체의 해석에 관한 고찰. *복식*, 37, p. 163.
- 43) Ann L. Hollander (1975). *Seeing through clothes*. N. Y.: Avon Books, pp. 85-86.
- 44) Anna M. Creekmore & Elain Pedersen (1979). *Body proportion of fashion illustration: 1840-1940, compared with the greek ideal of female beauty*. N.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July. pp. 379-388.
- 45) P. Glynn (1982). *Skin to skin-erotism in dress*. London: George Allne & Unwin, pp. 28-58.
- 46) Mary E. Roach- Higgins & Joanne B. Eicher (1992). Dress and identity. *Clothing and Textile Reserch Journal*, 10, pp. 1-8.
- 47) *Ibid.*, pp. 87-105.
- 48) 최병상. 앞의 책, p. 30.
- 49) M. E. Roach. 앞의 책, p. 54.
- 50) 이현주 (1978). *현대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인체표현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6.
- 51) Riley R (1963). *The posture of fashion*. American Fabrics, Fall-Winter, pp. 80-82.